

【 해외금융뉴스: 북미 】

미국 제로금리에 대한 일본·유럽 중앙은행 반응

- 파이낸셜 타임즈는 금번 美연준이 단행한 금리 인하는 실질적으로 제로금리를 뜻하며, 미국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논평함.
 - 미연준은 향후 경제 회복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곧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주장
 - 미연준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대출과 같은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,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실물경제는 회복된다고 봄.
- 미국의 제로금리 단행에 대해 나머지 기축 통화권의 중앙은행들은 제로금리 결정에 쉽게 동조하지 않는 반응을 보임.
 - 일본중앙은행(BoJ)은 엄밀히 볼 때 정책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며, 유럽중앙은행(ECB)은 Jean-Claude Trichet행장이 ‘서두를 이유가 없다’고 언급한 것처럼 제로금리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임.
- 그러나 일본의 금융시장은 BoJ가 현재 0.3%인 정책금리를 20bp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,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로금리와 같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통화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더욱이 엔화에 대한 가치가 올해에만 30% 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 금리 인하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임.
- 한편, 올해 들어 단지 2%만 평가 절상된 유로화는 엔화와 같은 압박은 없으나, 최근의 급격한 유로가치 상승 추세는 유로지역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.

□ 그러나 재정정책의 중앙관리가 불가능한 유로지역의 유로화 평가절하 유도는 통화정책에 의해서만 가능하며, 그 효과 역시 의문시되기 때문에 ECB는 미국과 같은 제로금리 결정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.

-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유럽의 각 정부는 자국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정부지출을 확대하였고, 이로 인해 시중금리는 상승된 상황임.
-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평가절하를 위해 ECB가 금리인하 정책을 취해도 시중금리를 낮추는 효과는 희석될 수밖에 없음.
- 반면,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공조하여 사용할 경우 효과적으로 시중금리를 낮출 수가 있음.
- 재정지출 확대에 의한 시중금리 상승은 국채 매수로 금리상승 압박 해소가 가능하며, 동시에 금리인하 정책을 사용할 경우 시중에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면 서도 평가절하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.
- 그러나 유로지역은 재정정책의 중앙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화 및 재정정책의 상호 공조는 기대할 수 없음.

□ 반면, 유로지역 금융시장은 딜레마에 빠진 ECB가 주저하고 있지만,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, 시간이 지체될 뿐 금리는 궁극적으로는 제로금리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.

- 유로화 선물시장의 추세로 볼 때 정책금리는 2009년 1월에 50bp가 하락하여 2.0%에 도달하고, 3월에는 다시 25bp가 하락하여 1.75%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(Financial Times, Lex, Macroeconomics & Markets 12/17)